

#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동향과 전망

## A Study on the Trend and Prospect of Visual Art Archives

심보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bjorkk@naver.com

Bo-Mee, Shim,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전시 중심의 단기적 활용을 벗어나 일종의 문화유산으로 시각예술 아카이브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국가단위 또는 주요 기관간 컨소시엄의 형태로 활발히 진행 중인 해외 문화선진국의 사례와는 달리 국내 시각예술계는 아카이브 기반 전시나 프로젝트의 인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단편적 접근방식으로 아직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비전이나 장기적인 전략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내 디지털 인프라의 선진성에 의지한 공공기관 주도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몇몇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경험을 통해 그 불투명성 및 위험성이 노출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창조경제 화두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로서 시각예술 콘텐츠 자산의 근간인 국내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경쟁력은 전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1. 서론

시각예술계에서 아카이브 기반 전시나 프로젝트의 진행은 이제 하나의 경향이나 유행을 넘어선 감이 있다. 2011년 임응식 전시, 2012년 이인성 탄생 100주년 전시, 2013년 건축가 정기용의 아카이브 전시에 이르기까지 근래 국립현대미술관이 진행한 전시들을 통해 우리는 작품 가치에 필적하는 아카이브 자료의 존재감을 실감할 수 있다.

해외 시각예술계에서의 아카이브 쓰임새는 이러한 전시 중심의 활용 행태를 넘어서서 일종의 문화유산으로 아카이브를 관리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국가단위 또는 주요국가간 컨소시엄 형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들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준을 바탕으로 두어 상호호환과 연계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아카이빙 화두에 대한 국내 시각예술계의 전략방안이나 대처 수준은 종합적 비전이나 장기 전략에 가깝다기보다는

종종 회자되는 “아카이브 열병“이라는 표현이 자동 상기될 만큼, 짧은 호흡과 단편적 접근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디지털 인프라의 선진성에 의지해온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한국영상자료원 등 몇몇 아카이빙 선도기관의 선형적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사례들을 통해 그 불투명성 및 위험성이 노출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국가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창조경제 화두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서 소프트웨어 자산의 근간인 아카이브 경쟁력은 반드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기에 창조경제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시각예술계의 아카이브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수행을 통해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후 시각예술 아카이브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아카이브 기능 중심 동향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분석결과와 기타 환경요소들을 고려한 향후 전망과 발전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 2. 이론적 배경

### 2.1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개념

“인간의 본다(see)라는 행위에 근거한 다양한 예술을 통칭하는 용어”라는 박주석(2011)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각예술의 범주는 그 태생적 광범위함을 넘어서 이제는 더 다원적이고 난해한 성격의 것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그러한 경향은 미술관들의 소장품 분류체계 사례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게티미술관의 매뉴스크립트, 테이트미술관의 설치, 모마의 미디어와 퍼포먼스 아트, 퐁피두센터의 디자인 그래픽 등 근대 미술관 소장품 구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 장르구분이 하나둘씩 나타면서 통일된 시각예술 분류체계의 적용이라는 것은 요원한 것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정연심(2013)이 정리한 바와 같이 사전적 의미를 넘어 ‘대안적 이야기와 시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자 ‘미학적 창작과정’으로 아카이브를 활용해온 시각예술계는 시각예술 아카이브 자체의 범주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작품의 포함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왔다.

결국 박주석(2011)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전시, 미술관, 경매, 비평, 교육, 화랑, 작가 등 시각예술을 둘러싼 모든 제도에 대한 기록을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범주와 유형은 시각예술 발전과정을 따라 보존과 활용이라는 아카이브의 기본 미션을 중심축으로 끊임없이 갈등하며 진화 중이다.

### 2.2 선행연구

김달진(1998)은 우리나라에 기록관리 개념 조차 생소했던 1990년대부터 미술정보자료의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고 자료 및 기관 유형을 망라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미술자료 관리 개선방안을 선구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삼성미술관의 아카이브 업무를 담당했었던 김철호(2007), 김기현(2000)은 시각예술부문 국내외 자료관리 실태의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아트아카이브의 개념, 역사, 기능을 정리하여 그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초창기 전문 아트아카이브의 바람직한 국내 도입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황동열(2007)은 국내 예술아카이브 개념을 확장시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포괄된 예술아카이브 개념을 제시하였고 각종 사례들을 폭넓게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국내 도입모델로 해외의 미디어테크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호신(2007)은 국립예술아카이브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기능과 운영체계, 연계 및 협력방안 등을 상세히 제안하였는데 예술아카이브의 공공성과 가치 등을 강조하며 국립예술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 기능, 조직체계와 인력 구성 등 기초체계를 제안하였다.

조소연(2009)은 영상자료 보존의 토대 마련 및 국립 영상아카이브 설립을 독려하기 위해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디지털시대 필름 아카이브의 정체성에 대한 규명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영상자료원의 발전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상기 선행연구들은 시각, 공연, 영상 등의 국내외 예술계 유관기관 현황을 기초로 하여 전문 예술아카이브를 국내에 도입하거나 발전시키려 했던 기초적 성격의 연구 작업들이다.

## 3. 동향 분석

### 3.1 시각예술자료의 수집 동향

황동열(2007)은 예술아카이브를 크게 ‘기관 소속아카이브’와 ‘다원수집아카이브’ 두가지로 구분하였다. 예술기관 소속 아카이브의 경우 모 기관의 주요활동 기록들을 최대한 충실히 수집 및 보존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게티미술관 기관 아카이브는

행정기록, 프로젝트, 주요 전시 프로그램 및 출판물, 부동산 기록, 언론보도, 장 폴 게티 매뉴스크립트 등을 기관 컬렉션으로 본다.

다원수집 아카이브는 미래의 공공적 가치로 기록정보를 판단함으로써 미래 연구나 전시에 도움이 될 만한 역사적, 정보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기록들을 선별 수집·보관하는 형태인데 게티미술관 아카이브는 기관 아카이브 외에도 회귀 서적과 사진, 프린트와 드로잉, 매뉴스크립트, 오디오와 시청각기록 등의 별도 다원수집 아카이브를 스페셜 컬렉션으로 관리한다.

전통적 성격의 기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들은 주로 작품 해석을 위한 참조형 보조자료들로 전기류, 소장품목록, 전시목록, 경매목록, 비평서 등 재판이 없고 한정부수 발간이 일반적인 고가의 회귀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유, 참여, 개방, 협력 정신 기반의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인터페이스 구축 및 네트워킹을 통한 데이터들의 융합서비스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떠오르면서 회귀자료의 물리적 수집에만 천착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유관 데이터의 안정적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최대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장르 교배의 예술적 실험이 일상적인 예술개념 확장 시대의 도래로 시각예술분야의 순수혈통을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기존 장르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복합장르 예술분야에 대한 아카이빙 전략을 연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으나 수집전략을 포함하는 뚜렷한 대안적 아카이빙 전략은 아직 제시된 바 없다.

### 3.2 시각예술자료의 조직화 동향

시각예술자료의 조직화 동향은 정보검색의 만족도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서비스 과정과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것이 조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검색의 시각화 등 이용자 검색 만족도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 중이며, 이 분야와 관련해서도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게티미술관 디지털 컬렉션은 브라우저를 통해 도서, 저널, 사진, 프린트, 드로잉, 아카이브, 멀티미디어 등 객체 유형별 접근이 가능하며 작가, 출처, 제목, 주제별로도 검색 가능하다. 또한 AAT, TGN, CONA, ULAN 등의 분야별 전문 시소러스 등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3.3 시각예술자료의 보존 동향

앞서 언급한 시각예술 개념 확장의 결과로 전통적인 시각예술 장르의 경계를 벗어나는 미술, 연극, 음악, 무용, 영화 등 장르 융합의 예술 형태가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각 작품의 객체적 특성 파악을 통해 최적화된 보존전략을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역시 대안적 아카이빙 전략의 모범답안 도출은 아직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핵심 예술요소들에 대한 고민과는 별도로 디지털 기록정보의 태생적 수명 불안정성과 복합매체 관리방안의 난해함 등에 기인하여 시각예술자료를 포괄하는 모든 보존과제들은 더 이상 단일기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성질의 것으로 변모가 된지 오래이다. 일본 센다이 미디어테크나 뉴욕 아이빔 사례와 같은 자연재해에 기인한 기록정보 유실은 각종 위험관리의 필요성까지 대두시켰다.

### 3.4 시각예술자료의 서비스 동향

시각예술자료 수집 동향에 언급된 것처럼 디지털 인터페이스 구축 및 네트워킹을 통한 데이터의 융합서비스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정연심(201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작가의 작품이나 미술사 해독을 돕기 위한 ‘참조형 보조자료’를 주로 제공하던 서비스가

이제는 ‘미술가와 관람자의 상호 인터랙션을 위한 현대미술 사용설명서’ 역할을 수행하는 진화된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조류는 이미지와 미술사 지류정보가 함께 제공돼야 예술적 맥락의 이해가 충분한 시각예술 작품의 특성상 꼭 필요한 잠재적 서비스 니즈였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러우나, 점점 더 복잡하고 난해한 성격으로 변해가는 법·제도적 환경과 공정이용 판단의 기준부재는 이러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

아카이브 서비스 관련 가장 주목할 동향은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는 서비스의 부상이다. 미국미술아카이브, 모마, 대영박물관 등이 위키피디아와 함께 진행했던 디지털자료 설명 및 원문평가 프로젝트, 글랩 프로젝트는 이용자 의견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공동작업으로 주목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4. 결 론

시각예술자료의 수집, 조직화, 보존, 활용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화두는 연계와 협력이다. 시각예술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연관주체들이 각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록정보들의 기술범위와 내용 신뢰성 확보방안에 합의하는 거버넌스형 시각예술 기록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산재한 과제들을 풀어갈 만한 실마리들의 축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예술 가치 규정, 디지털 보존, 법적 이슈 등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기반한 기록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구축 등 인프라 기반의 마련 또한 필수적이나 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점은 중복투자를 피하고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종합적, 장기적 비전의 수립이며 초국가적 협력에 동참하려는 자세일 것이다.

창조경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창조산업 아카이브 구축에서 시작된다.

#### 참고문헌

- 곽승진. 2011. 「예술기록자료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구축과 네트워킹 - 뮤지엄과 아카이브 그리고 건축」. 국립현대미술관.
- 김기현. 2000. 「아트 아카이브의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김달진. 1998. 「국내 미술자료 실태와 관리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김철효. 2007. 「시각예술 분야 자료 관리 현황 -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예술경영지원센터.
- 박주석. 2011. 「시각예술의 제도와 기록 - 예술기록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 국립예술자료원.
- 이호신. 2007. 「국립예술아카이브 설립 및 운영방안 - 예술자료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예술경영지원센터.
- 이호신. 2011. 「예술자료 정보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 - 예술자료관리의 중요성과 국립예술자료원의 역할」. 국립예술자료원.
- 정연심. 2013. “2000년대 이후의 현대미술과 아카이브 열병”. 「미술세계」. 338: 88-91.
- 조소연. 2009. 「디지털시대의 영상 아카이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 한상완, 노영희. 2004. 「인문과학과 예술의 핵심지식정보원」. 서울: 연세대학교.
- 황동열. 2007. “예술아카이브의 현황과 도입 방안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2: 177-215.
- Getty Research Institute. [cited 2013. 8. 9.] <<http://www.getty.edu/research/>>